

조선 후기 휘절소설 속 ‘복수의 남성성들’과 남성 젠더 실천의 다층성* **

이채은***

<차례>

1. 들어가며
2. 조선 후기 양반층의 복수의 남성성들
3. 휘절소설 속 남성 젠더 실천의 다층성
 - 1) 여성 거래를 통한 ‘지배적 남성’의 연대 회복: <지봉전>
 - 2) 노골적 응시를 통한 ‘미성숙한 남성’의 각성과 성장: <오유란전>
 - 3) 해계모니로부터 탈주를 통한 ‘대안적 남성’의 실천과 실패: <삼선기>
4. 결론을 대신하며: 휘절소설의 다층성과 서사적 향유의 의미

<국문초록>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여색에 초연하다고 자처하는 남성 인물들이 주변인의 공모에 의해 호색적 성격을 폭로당하는 내용의 ‘휘절소설’들이 등장한다. 공통적으로 휘절소설에서는 주인공 남성들의 이성에 섹슈얼리티가 확인되는데, 휘절한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공동체 내부로 포용된다. 그러나 개별 작품마다 주인공의 구체적인 휘절 과정과 결말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지봉전>은 이성에 섹슈얼리티를 거부하여 동성사회적 기준과 불화하는 지배적 남성인 지봉 이수광을 진정한 남성으로 교화시키는 과정을 서사화했다. 주인공은 다른 지배 계급 남성들과 여성 거래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공적 관계를 맺는 지배 계급 남성들 간의 유대와 질서가 강조된다. 주인공은 휘절 과정에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8910)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11일에 열린 제124차 한국고전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서 절대 비속해지지 않는다.

〈오유란전〉의 이생은 미성숙한 남성으로서 역시 이생에 섹슈얼리티를 거부해 동성사회적 기준과 불화하는 자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 관계에 있는 남성의 공모로 훼손되며, 그 과정에서 알몸이 해학적으로 천하에 공개된다. 서사 말미에는 이생이 온전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체현한 존재로 성장한 후 동성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후일담이 자세하게 제시된다.

〈삼선기〉의 초반부 서사는 세속적 욕망을 외면하는 지배 양반의 훼손을 그렸기에 〈지봉전〉과 유사해보인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주인공 춘풍이 훼손 이후 대안적 남성성을 실천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작품들과 구별된다. 춘풍의 첸더 실천은 남성 동성사회의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므로 다른 서사와는 달리 그를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반동인물이 등장한다. 결국 춘풍은 기존의 남성연대에 편입되지 못하고 다른 세계(신선의 공간)로 건너간다.

훼손소설군의 서사적 정형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품 속 주인공이 보여주는 첸더 실천들이 결코 단일하지 않는 까닭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하나의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남성적 규범을 제각각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삶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복수의 남성성들’의 양상을 반영한 훼손소설들은 당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위기에 대한 서사가 꾸준히 창작되고 향유되어 오는 동안 가부장제는 언제나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들은 어떤 시점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남성 훼손 서사는 확고부동한 권력인 것처럼 보이는 남성성의 개념이 사실은 계속 도전받는 연약한 구성물뿐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어 주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남성성 모델이 얼마나 깨뜨리기 어려우며 영향력이 큰지를 동시에 알려준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훼손소설, 남성성, 동성사회성, 남성훼손서사, 훼손담, 헤게모니적 남성성, 남성성들

1. 들어가며

조선 후기에는 여색에 초연하다고 자처하는 남성 인물들이 주변인의 공모에 의해 호색적 성격을 폭로당한다는 내용을 공유하는 일군의 소설이 등장한다. <정향전>, <지봉전>, <종옥전>, <오유란전>, <배비장전>, <삼선기>가 그것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녀에 의한 남성 주인공의 醜絶' 화소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정형성이 뚜렷해 '醜絶소설'¹⁾로 불린다. 이들은 세태소설 또는 풍자소설로도 이해되어왔으며, 18~19세기 장편 가문소설·한문 장편소설과 더불어 우리 소설사의 한 축이 되어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醜絶(毀節)'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타의나 자의에 의해 '절개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醜絶소설이라는 명칭에서 그것은 주인공 남성의 여색의 절제와 금욕에 대한 자신감이나 의지를 꺾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²⁾ 주인공의 醜絶은 그의 의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주변인들의 내기와 공모를 거치면서 전개된다. 주요 작품들은 한문본으로도 전하고 있기에, 이들은 여성 독자에 의해 주도되어 온 국문 고소설과 대조적으로 당대 남성들의 가치관과 향유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텍스트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작품 내·외부적인 특징 때문에 醜絶소설은 주로 조선 후기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한 작품군으로 이해되어 왔다. 윤채근(2008)은 醜絶소설을 18세기 이후 섹슈얼리티가 교환경제의 수준에서 재정립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파악했고,³⁾ 정혜경(2017)은 이

1) 김기동, 『오유란전소고』, 『국어국문학』 20, 국어국문학회, 1959, 78~83쪽.

2) 장교운, 『醜絶소설의 속임수와 작가의식』,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16~18쪽.

3) 윤채근, 『조선후기 남성醜絶 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양상-정념 담론에서 이의 담론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45~86쪽.

작품군이 이성과 감정의 교차구조를 통해 여색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시선을 담아내는 의지 시험을 유쾌하게 풀어낸 것으로 평가했다.⁴⁾ 또 장교운(2019)은 훼손소설이 성과 인간이 불가분리임을 보여주면서 과도한 색욕의 추구나 배제 모두가 옳지 않다는 성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⁵⁾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도 각 작품 속 남성 주인공의 욕망과⁶⁾, 주인공을 망신주는 귀신 장난과 웃음의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⁷⁾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훼손소설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곧 ‘남성’을 다루는 연구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이 전제하는 ‘남성’은 ‘여성’과 대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국가권력의 대변자’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남성성(masculinity)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여성과 대립되는 생물학적 남성의 자기인식을 통해 규정된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그것이 정치경제와 문화적 변동에 따라 달리 생성되고 변화하는 구성체로서 새롭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⁸⁾ 이는 남성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대문자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복수

4) 정혜경, 「감정과 이성의 역학, 인간학으로서 훼손소설」, 『국제어문』 74집, 국제어문학회, 2017.

5) 장교운(2019), 위의 논문, 163쪽.

6) 손동국, 「〈강릉매화타령〉에 나타난 성적 욕망의 인식 문제」, 『한국어와문화』,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2; 신호림, 「〈강릉매화타령〉에 나타난 욕망의 성격과 징계의 의미」, 『어문논총』 84,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조은상, 「〈종옥전〉에 나타난 성적불안과 아버지세계로의 회귀」,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주형예, 「〈배비장전〉의 성적 환상」,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강지영, 「〈강릉매화타령〉 속 골생원의 욕구와 자아」, 『비교문학』 90, 한국비교문학학회, 2023.

7) 김수연, 「〈오유란전〉에 나타난 남성성장과 웃음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8) 예를 들어 ‘이성적, 능동적, 공격적’인 것은 여성과 대조되는 남성의 본래적 자질이 아니라,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남성이라면 그래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규범들의 구성물일 뿐이다. 권길현영, 『남장여자/남자인간의 의미와 남성성연구 방법』,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의 '남성성들(masculinities)'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수반한다.

이처럼 가부장제를 떠받드는 권력인 남성성이 단일부동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도전받는, 심리학적으로 연약한 공간'⁹⁾이기에, 남성 중심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연대가 동반된다. 이브 세즈웁은 이를 '동성사회(homosocial)'라 칭하는데, 특히 여기에는 이성애 섹슈얼리티가 남성적 지위를 획득하는 핵심 경로로 제시된다. 남성 동성사회는 여성적인 자질을 배제하기 위해 남성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성과의 성행위는 가장 손쉽게 개인의 남성성을 보증해주는 일이다. 성 경험이라는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성을 상호 간 승인하는 하나의 의례로 기능한다. '남자라면 여성을 욕망해야 한다'라는 언술에는 동성사회에 편입되는 조건으로서 남성성의 규범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은 이러한 규범을 체화할 때 연대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갈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동성사회에 섞이지 못하거나 남성적 기준에서 탈락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는 남성성 미달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문제를 교정해서 연대에 섞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도 있으며, 또는 남성 중심적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여 자신이 아닌 외부적 문제를 교정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남성성과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휘절소설 작품군의 장르 관습과 변주 양상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작품들이 공유하는 화소인 남성의 휘절은 곧 주인공 남성의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확인하는 과정에 다름아니며, 그것은 곧 남성 동성사회에서 남성적 지위를 획득하는 핵심 조건이기에 휘절한 남성

9) Kaiksow, S., "Subjectivity and Imperial Masculinity: A British Soldier in Dhofar, 1968-1970", in *The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2008, p.62; (설혜심, 「서구 남성사 연구의 주요 의제들」, 『젠더와 문화』 10권,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7, 34쪽에서 재인용.)

은 공동체 외부로 축출되지 않고 오히려 동성사회의 확실한 성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¹⁰⁾ 그러나 한편 개별 작품마다 주인공 남성의 구체적인 훼손 과정과 결말에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개별적 변주는 바로 각 작품 속 등장인물의 남성성과 동성사회 편입을 위한 젠더 실천들이 결코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될 수 있겠다. 모범적이라 여겨지는 남성적 규범을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제각기 다른 젠더 실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훼손소설 작품들 속에서 남성성의 위계나 균열이 어떻게 확인되며, 그리고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동성사회적 욕망과 실천이 어떻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서사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훼손소설이 창작되고 읽혔던 조선 후기에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함께 공존한 다양한 ‘남성성들’의 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개별 작품들 속 남성 주인공들의 형상에서 이러한 다양한 남성성들의 위계와 얽힘, 젠더 실천을 분석하면서 훼손소설의 창작과 향유가 가진 의의를 구체화해 볼 것이다.

2. 조선 후기 양반층의 복수의 남성성들

‘남성성(masculinity)’이란 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일컫는 개념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개인들에게는 믿고 따라야 할 기준이 되는 남성으로서의 정체

10) 특히 송소라의 논의가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 분석을 진지하게 시도하였다. (송소라, 「남성훼손서사 다시 읽기: 해학과 풍자에 가려진 여성혐오」, 『어문연구』 18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115~147쪽) 송소라는 여성의性を 이용해 남성 훼손을 실현, 전시하는 남성훼손서사가 남성연대의 강화를 위해 여성을 도구화하는 여성혐오의 면모를 내면화하는 이야기라고 보았다. 여색을 부정하면서도 긍정하는 이중적 태도가 ‘인간적’이라고 해석할 때, 그 ‘인간’은 ‘남성’만을 포함한다는 지점에서 젠더비평의 관점에서 훼손서사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성, 즉 '남성다움'을 규정짓는 특정한 성 역할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성은 여성과의 생물학적 차이가 성 역할로 고정적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오늘날 그러한 이해는 바뀌고 있다. 성 역할 이론이 남녀 간 차이를 과장할 뿐 아니라 인종이나 계급, 섹슈얼리티의 구조를 덮기 때문에 사회적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¹¹⁾ 남성성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고정된 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규범이 수동적으로 내면화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에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모든 남성성을 단일한 권력 패턴으로 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계급, 인종, 문화·제도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산과 소비, 자연환경, 사회적·군사적 투쟁 등 사회의 여러 차원의 구조와 폭넓게 관계되어 있다. 남성성을 한 가지 이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가부장제 하의 모든 남성 개인이 모범적 남성성을 체현한 굳건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적극 체현하여 여성 종속을 보증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종속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주변화된 남성성', '대항적 남성성', '저항적 남성성' 등으로 호명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이 복잡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¹²⁾

여기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한 사회의 이상적 가치, 즉 권위, 육체적 강인함, 용기, 명예 등을 가져 문화적 패권을 가진 남성성의 '이상(ideal)'을 일컫는다. 이것이 이상이라는 것은 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남성들이 별로 없으며 엄청난 사회적 권력을 쥔 사람들조차 그 기준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남성들이 추구해야 할 판타

11) R.W.코넬·안상욱 외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56쪽.

12) Connell and Messerschmidt,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in *Gender and Society* 19(6), Sage Publications, Inc., 2005, p.831.

지와 욕망을 광범위하게 퍼트리기에,¹³⁾ 남성 개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계발하기 위해 상당히 헌신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복수의 남성성들 (multiple masculinities)’의 위계가 구축된다.

이 위계 속에서 보통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바람직한 남성상으로 제기 되고 다른 차원은 억압되지만, 특정 국면에 따라 길항하거나 화해하기도 한다.¹⁴⁾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젠더 규정력이 강화되는 동성사회적 유대가 동반되어 남성 중심적 구조의 기제가 유지되고 확장된다.¹⁵⁾ 이 관점에서 가부장제는 오직 남성이 여성을 타자화하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남성성들이 동맹을 맺고 지배하고 종속하는 관계, 누군가를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실천으로도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휘절소설 속 ‘남성’ 주인공들도 여성에 대한 대타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남성 내부의 권력관계 속에서도 조명될 필요가 있다. 휘절소설은 계층적으로는 양반인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과 공적·사적인 관계 속에서 연대하거나, 공모하거나, 대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양반이란 법제적인 신분이기도 하지만 통념적으로 사회문화적 패권을 쥐고 있는 계층을 뜻하며, 양반 남성들이 지향하는 젠더적 이상은 곧 당대 사회에서 문화적 패권을 가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이 된다. 휘절소설이 유행했던 조선 후기 양반층의 젠더적 이상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유교의 젠더규범을 토대로 한다. 그것은 남녀의 타고난 속성이 다르다는 전제로부터 각각의 역할을 도출한다. 부드럽고 유순한 여

13) Connell and Messerschmidt(2005), *ibid.*, p.838.

14) 류지현, 「남성 페미니스트 주체의 자기 구성과 경계 횡단하기」,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25쪽.

15) Sedgwick, E 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성의 속성은 강건하고 굳센 남성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주도하는 남성'과 '보조하는 여성'의 젠더 위계가 마련된다.¹⁶⁾ 보편화된 타자로서 인지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지배로 정의되는 가부장제의 집단적 수익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문제는 남성 개인이 모두 '주도하는 남성'들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의 타고난 품성도 후천적인 노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만약 노력에 따라 재주와 덕을 모두 겸하게 되면 '성인(聖人)', 재주와 덕 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인(愚人)', 덕이 재주보다 낫다면 '군자(君子)', 재주가 덕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면 '소인(小人)'이라 불리는 데,¹⁷⁾ 이 중 '성인'과 '군자'만이 유교에 기반한 남성의 이상,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성인의 '聖'은 어원적으로 '通'을 의미하며, 성인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기량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한다. 성인은 이상적인 통치자, 도의 구현자, 예와 문물의 제정자로서 내면적 덕과 훌륭한 통치 능력을 동시에 갖춘 존재이며,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 군자는 성인보다는 못하지만 덕을 갖추어 사리(私利)보다는 의(義)를 우선시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예지의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성인·군자형 남성성'은 합리성에 기대어 가치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본질을 보여준다.

16) 이숙인, 「지속과 변용의 측면에서 본 19세기 유학의 젠더 담론」, 『인간연구』 3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9, 103쪽.

17) “선유가 말하기를, 재주와 덕이 겸전한 사람을 성인이라 하고, 재주와 덕 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우인이라 하며, 덕이 재주보다 나은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재주가 덕보다 나은 사람을 소인이라 한대라고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04,08,20 기축)

18) 성인은 수기치인의 완성자이며, 군자는 수기치인을 잘하는 자로 성인을 향해 가는 자를 뜻한다. (이동건, 「선비와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그런데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고정된 모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유동적으로 재배치되는데, 성인·군자로 대표되는 이상적 남성 모델 역시 늘 다른 남성성들과 경합을 벌이거나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두 번의 전란 이후 17세기에는 무(武)에 대한 숭상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중국·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호방한 남성상이 유행하게 되면서,¹⁹⁾ 호탕·호걸·풍류·엄음·준열함을 담당하며 호기로운 대장부의 모습을 보이는 ‘영웅호걸형 남성성’이 주목받게 된다.²⁰⁾ 그런 한편 더욱 후기로 접어들면서는 양반층의 남성성이 평민사회의 남성성의 기준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유연하게 변모해 간 사례 또한 여러 문헌 속에서 발견된다.²¹⁾ 평민 남성의 삶에서는 성리학적 인간상의 기준은 종종 무시되곤 했으며, 대신 용맹함이나 폭력성, 완력과 담력, 성적 능력 등과 같은 기준이 남자다움을 증명하는 데에 적용되어 왔다. 특히 판소리계 소설 속에서 양반 남성들의 젠더 실천이 성인·군자형, 영웅호걸형을 넘어 평민적 남성성의 기준과도 혼효되는 양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²²⁾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 후기에 유교적 헤게모니적 남성 모델이 ‘해체’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시기에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동반되기 때문이다. 18~19세기에는 호적상 직역을 유학

19)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81쪽.

20) 성인·군자형 모델이 온화·온중·침묵·단언함을 담당하며 유교 윤리에 충실한 도학자적 성격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 영웅호걸형 모델은 인간의 두 본성인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중 후자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남성상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박태복, 강유규, 「〈현몽쌍룡기〉 連作의 人物類型 研究 男性人物의 類型과 反復樣相을 中心으로」,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2011, 184~185쪽.)

21) 박노자, 『씩씩한 남자 만들기』, 푸른역사, 2009, 62쪽.

22) 김경미, 「〈변강쇠가〉에 재현된 하층 남성의 이미지」, 『우리 문학의 여성성·남성성 (고전문학편)』, 월인, 2001; 서유석, 「실창판소리 남성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이채은, 「〈심청전〉 속 심봉사의 남성 젠더 실천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儒學)으로 기재한 인구가 급증한 만큼 통계적으로는 양반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본래 양반들만이 독점했던 권리 일부가 비양반층으로 확산하여 평민은 물론 노비의 후손까지 유학 직역을 획득하며 양반 문화를 모방해 나가기도 했다. 유학의 급증은 관료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고, 여기에 거듭된 상속으로 양반가의 재산이 흩어지게 되면서 양반층의 위기를 불러왔다. 그러자 일부 양반들은 새로운 세력을 차별하고 배제하여 기존 세력을 보존하기 위해 예로부터 이어온 부계 혈연 공동체나 동성촌락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속한 문중 활동을 중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반의 가격(家格)을 엄중하게 따지는 풍토가 생겨났다.²³⁾

그 결과 '지배 양반'과 '낮은 양반(혹은 지방 양반)' 간의 위계와 층차가 심화되었다.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실질적 특권층인 '지배 양반'으로 대우받으려면 단순한 유학 직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더해 양역세를 면제받거나 문무반 관직을 독점하면서 실제 양반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더불어 문중을 중심으로 동성촌락을 형성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까지가 모두 엄격하게 필요해졌다.²⁴⁾ 이는 조선 후기를 헤게모니적 남성 모델이 유연해지며 균열이 일어난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헤게모니의 내부적 차별과 경계 짓기를 통한 안정화가 양면적으로 동반된 시기로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간략하게 살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조선 사회의 남성성 역시 현대사회만큼이나 모든 개인에게서 동일한 것이 아니었으며, 계층·지역·나이·교육·외모 등의 다양한 지표와 교차하며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23) 권내현, 「조선후기 신분 변동론 그 이후」, 『朝鮮時代史學報』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201쪽.

24) 19세기에는 통계상 지역에 따라서 60~70%가 양반의 직역을 갖춘 것으로 집계된다. 그 중에서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지배양반은 통계외는 달리 5% 내외에 불과했다. (김성우, 「18~19세기 '지배양반' 퇴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88쪽)

준다. 특히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균열과 안정이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조선 후기의 복잡한 상황은, 양반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와 동성사회적 욕망을 서사화한 휘절소설 텍스트들을 좀 더 섬세하게 독해해 볼 필요성을 말해준다.

3. 휘절소설 속 남성 젠더 실천의 다층성

조선 후기에 유행한 휘절소설은 사대부 소화(휘절담)에 기원을 둔 것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견고한 장르 관습을 갖고 있다. 이는 ‘①한 양반이 정남임을 지나치게 자신함 ②다른 남성과 기녀가 정남 휘절을 위해 공모함 ③계략에 의해 정남이 휘절함 ④지나친 여색 행각이 폭로되어 망신당함’의 서사 과정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장르적 정형성은 주인공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얼마나 체현한 인물인지, 주인공과 다른 남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휘절 이후 주인공이 동성사회적 기준을 얼마나 내면화하여 실천하는지 등의 여러 문제와 복잡하게 만나며 서사적 변주를 보여준다. 지금부터 <지봉전>, <오유란전>, <삼선기>의 세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변주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한다.

1) 여성 거래를 통한 ‘지배적 남성’의 연대 회복: <지봉전>

<지봉전>은 ‘지배적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이성애적 섹슈얼리티를 확인한 후 헤게모니적 남성들 내부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지봉전>은 1808~1934년 사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문필사본이 유일본으로, 작자와 출전이 미상인 작품이다.²⁵⁾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25) 조선 17대 왕 효종과 지봉 이수광을 중심인물로 하여 서사가 진행되지만, 실제 생존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후대인 18세기 이후에 창작된 작품이라 여겨진다. 특히 혼성모방을 지향하는 서술 방식이 19세기 소설사의 흐름에 한문소설이 반응한 양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의승, 「<지봉전>의 성격 재고」, 『어문논총』 72, 한국문

- ①효종이 총애하는 신하 김복상이 궁녀와 사통한 일을 두고 이수광은 그를 국법으로 참수시킬 것을 주장한다. 효종은 김복상을 제주도로 귀양보낸다. ②효종은 지봉을 평양으로 보내 지역 행정을 돌볼 것을 명하며 전별의 예로 부채를 선물한다. 한편 효종은 평양감사에게 편지를 보내 지봉의 휘절을 명한다. ③기생 백옥이 지봉을 휘절시키고 임금이 지봉에게 준 부채를 받아낸다. ④한양으로 돌아온 지봉이 백옥과의 일을 고백하자 효종은 지봉과 백옥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복상과 궁녀를 귀양에서 풀어준다.

이 텍스트의 휘절 대상인 지봉과 휘절 공모자인 효종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이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성군(聖君)의 자질을 갖춘 효종은 자애로우면서도 불필요한 살생 없이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강단있는 인물이다. 내면적 덕(德)과 통치 능력(才)을 두루 갖춘 보통심을 지닌 자(蓋好生之德懲習之意, 寔出於尋常萬萬也)로, 숭상할만한 덕을 풍성히 낳아 논란거리가 없는(蓋聖朝生盛之德尙矣, 無庸議爲) 어진 임금이라 서술된다.

주인공 지봉 이수광은 열다섯에 장원급제 후 승승장구하여 판서직까지 역임한, 재덕을 겸비한 노인이다. 임금마저 공경하며 예를 갖추는 조정의 어른으로, 일상의 품행이 고결하고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한나라 급암(汲黯)에 비유된다. 평생 여색을 삼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그는 조정의 신하 중 유일하게 본가 밖에 첩을 두지 않은 인물이다. 평양에 가셔도 기녀들의 음물만을 평가할 뿐 결코 여색을 탐하려 하지는 않는다.

가부장제는 가정을 잘 통치해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국가의 기본 단위로 간주하는데, 가정이란 철저히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여성과 어울리며 그들을 가정과 사회에서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남성 세계의 질서다. 그러나 이수광의 도학자적 면모는 '여자를 욕망하라'라는 남성 동성사회의 정언명령

에 대한 거부와도 같다. 그가 조정에서 첩을 둔 다른 남성들과는 특별한 유대관계를 보여주지 않으며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면모를 보이는 점도 그가 남성 세계의 질서에 쉽게 섞이지 못하는 인물임을 드러낸다.²⁶⁾

남성 동성사회의 관점에서는 위반적 수행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주체가 가진 잠재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남성중심의 구조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이수광의 지나친 절개는 꺾여야만 하는 것이기에 기생 백옥이 등장하여 그를 훼손시키는 서사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듯, 이수광은 백옥의 훼손로 인해 결코 회화화되거나 비속해지지 않는다.²⁸⁾ 그는 백옥과의 관계에서 성욕을 난잡하게 분출하지도 않으며, 훼손 후 평생의 지조가 꺾인 것에 대해 심란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공은 백옥과 만난 이후로 여러 여악과 허다한 못 기녀들을 모두 물리쳐보냈다. 유독 백옥과 함께 조용한 한 곳에 거처하였다. 더러는 거문고를 켜며 노래 부르고, 더러는 시를 지으며 술을 마시면서 소요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뻐하며 가까이하는 유희와 남녀가 성교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답답하기가 참선하는 승려와 같았다.”²⁹⁾

26) 실제로 지봉 이수광은 왕족의 후예로 태어나 정관계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지봉은 특별한 개인적 사승관계가 아니라 관학교육을 통해 학자로 성장했다. 돈독한 사우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봉당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조도현, 「『지봉전』의 역사인물 형상화를 통해 본 작가의식」, 『인문사회21』 6권,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559쪽)

27) 류지현(2022), 앞의 논문, 84쪽.

28) 우선희는 지봉이 훼손의 과정에서 비속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가 실존인물이기 때문이라 보았다(우선희, 「男性毀節小説의 敘事的 特徵과 文化的 位相」,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지봉이 훼손 과정에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 호색성을 드러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세태풍자적 특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하며(조도현(2015), 위의 논문, 557쪽), ‘놀림감의 대상’으로 형상화되지 않기에 다른 세태소설들과 결을 달리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한의승(2017), 앞의 논문, 216쪽)

“다만 내가 평생동안 여색을 삼갔던, 깨끗하고 지조 있는 처신은 조정에서의 신하로서 복무일뿐만 아니라 임금이 밝혀 살피는 바이거늘, 도중에 그 처신을 바꾼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 (...)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헤아려도 마음속은 심란하도다.”³⁰⁾

癸卯 후 이수광이 한양으로 돌아와 임금에게 백옥과의 일을 고백했을 때 그는 ‘진실로 충직한 신하’라고 치하받는다. 이 장면에서 임금은 말한다.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거나 절개가 있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다(色界之上, 無英雄節士, 今古同然)’라고. 이 때 비로소 이수광은 첩을 둔 조정의 다른 남성들과 동일시된다. 이 점에서 이 공의 癸卯은 그를 모욕하여 동성사회의 바깥으로 내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확인하고 드러냄으로써 그에게 확실한 동성사회의 성원권을 부여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남성들과의 동일시를 이끌어내는 지봉의 癸卯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브 세즈웁에 따르면 남녀의 삼각관계 로맨스 서사는 겉으로는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여성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남성 간 유대에 대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삼각관계는 이성애적 관계가 초점화되어 있으나 사실은 한 여자를 공유하는 남성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성친화적 관계라는 뜻이다.

모든 癸卯소설이 남성의 이성애 로맨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화소를 활용하지만, <지봉전>의 경우에는 특히 그 과정에서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삼각관계가 강조된다. ‘효종-궁녀-김복상’, ‘이수광-백옥-선우순’의 삼각구도가 그것이다. 이들 삼각관계가 표면적으로 다루는 것은 ‘남녀’간의 섹

29) <지봉전>, 신해진,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65쪽. 밑줄은 인용자.

30) <지봉전>, 위의 책, 72쪽.

슈얼한 관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같은 여인을 공유하는 남성들 간의 진한 유대가 발견된다.

먼저 왕의 여인인 궁녀와 사통한 김복상은 ‘풍채와 태도가 이롭답고 담론을 잘하여(美風度 善談論)’ 임금이 ‘그를 매우 사랑하여 가까이 거처하게 하고(上甚愛之 使處密邇)’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총애받는(暫不離側 甚愛寵)’ 젊은 청년이다.³¹⁾ 복상에 대한 효종의 애정은 한나라 애제의 동현(董賢)에 비유되어 있다. 효종은 복상이 궁녀와 팔을 베고 잠든 모습을 목격했지만, ‘은애로서 살필진대 정리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揆諸恩愛, 情所不忍)’ 땀받이옷 한 폭을 잘라 얼굴을 덮어주고 나온다. 이 장면은 애제가 동현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 낮잠을 자다 깬데, 동현을 깨울 수가 없어 그가 베고 있는 옷소매를 잘라냈다고 하는 ‘단수지 폐(斷袖之嬖)³²⁾’라는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효종은 복상을 귀양보낸 이후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복상을 생각하여 간절한 마음’(上思想福相, 雖切於心)을 잃지 않는다.

동성사회성(homosocial)은 표면적으로는 동성애(homosexual)를 거부하고 이성애를 조건으로 성립된다. 남성들의 ‘친밀한 남성 유대’가 강조되지만 이와 ‘매우 유사한’ 동성애는 금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즈윅은 동성사회성과 동성애가 사실상 남성간 친밀한 연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며, 심지어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속체(continuum)라고 논했다.³³⁾ 삼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연적 남성과의 동일시 및

31) 텍스트에서는 복상의 젊음과 아름다움만을 언급할 뿐 그의 재덕이 어떠한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한나라 문제가 총애했으나 무능했다고 알려져 있는 등통에 비견되어 있기 때문에 재덕을 겸비한 군자라고는 보기 어렵다.

32) 반고가 쓴 『한서』 「영행·동현전」에 수록되어 있다. 동현 역시 아름다움으로 애제의 호감을 산 인물이며, 단수(斷袖)는 이후 남성 동성애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다.

33) 류지현(2022), 앞의 논문, 145쪽.

애증의 관계인데, 이는 동성사회에서는 동성애가 혐오되므로 남성들은 서로를 향한 애정과 유대를 표현하기 위해 남녀관계라는 제도화된 알리바이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현의 이미지를 복상에게 덧씌운 이 텍스트는 효종과 복상의 유대를 동성사회성과 동성애의 미끈한 연속체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한편 이수광은 전혀 다른 유형의 남성성을 보이는 선우순과 백옥을 사이에 두고 연대한다. 백옥의 남편이었던 '상호(上豪)' 선우순은 기자의 후예로 기질이 호탕하고 인품이 뛰어났으며 재주와 덕이 뛰어난 인물이다. 단청과 붓글씨, 음악 등 예술에 조예가 깊고 스스로를 '풍류남아'라 자처한다(生自是 風流男兒).³⁴⁾ 이수광이 서울의 지배 양반이자 도학자형 인물이라면 선우순은 평안도 지방 양반이자 영웅호걸형 인물이다. 백옥이 떠난 뒤 선우순은 처량하고 쓸쓸한 심정을 담은 음악을 작곡해 통소를 부는데, 이수광이 강산을 유람하다 이 통소 소리를 우연히 듣고서 그것이 '꽃을 찾는 곡조에서 시작하여 황(凰)을 찾는 곡조로 끝을 맺는(初起於尋芳之曲, 終之於求凰之曲)' 노래임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이러한 두 남성 간 '지음(知音)'의 장면 역시 삼각관계 로맨스 속에 숨겨진 남성 연대를 함의한다.

한편 백옥이 이수광의 휘절을 위해 선우순에게 부부의 인연을 잠깐 끊어달라 부탁하는 논리도 흥미롭다. 그녀는 본디 관아의 창기였기에 임금의 녹을 먹은 것이며, 지봉을 휘절하라는 교지가 내려왔으니 관에 속했던 자신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백옥도 본디 '임금의 소유'였던 여성이므로 그녀는 결국 임금과 이수광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그리고 이수광은 늘상 효종이 하사한 부채를 애지중지하며 임

34) 선우순의 존재는 생략해 버려도 작품 전개상 전혀 문제가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선우순의 존재를 작가의 애정전기소설 독서체험의 흔적으로 보기도 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통소를 부는 비슷한 광경이 〈최척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다. (윤세순, 「지봉전 연구-17세기 애정전기소설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2005, 211~212쪽)

금을 향한 흠모와 공경을 은뎀으로 드러내고, 효종도 이수광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결국 이 삼각관계 속에서 서사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들은 이성애라는 안전한 장치 속에서 연대를 강화한다. 서사의 말미에서는 신하의 실수를 포용하는 자애로운 임금과 그러한 임금을 존경하는 신하의 돈독한 유대, 그야말로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모범적인 군신 관계가 전면배치된다.³⁵⁾ 효종과 이수광의 성인·군자형 남성성, 선우순의 풍류호걸형 남성성, 김복상의 종속적 남성성 등 헤게모니적 남성성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남성들 모두는 결국 동성사회의 안전한 테두리 안으로 성공적으로 포섭되며, 그 어느 작품보다 막강한 권력을 쥔 남성 연대를 창출한다.

2) 노골적 응시를 통한 ‘미성숙한 남성’의 각성과 성장: 〈오유란전〉

다음으로, 〈오유란전〉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향하지만 아직은 지배층으로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 ‘미성숙한 남성’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의 성장을 그린다. 〈오유란전〉은 3종의 한문필사본이 전하는데, 모두 19세기 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한양의 김 재상과 이 재상의 아들들이 생년일시가 같아 동문수학하는데 김생은 급제하고 이생은 낙방한다. 김생이 평안감사를 제수받아 이생을 데리고 임지로 나아간다. 김 감사가 이생의 생일연에 기생을 부르자 이생이 화를 내며 물러간다. ②감사가 기녀 오유란을 불러 한 달 안에 이생을 휘절하도록 명령한다. ③오유란이 수절과부인 척하여 이생을 휘절시키고, 감사는 이 재상의 병환이 심해졌다는 거짓 편지를 전달해 이생을 상경하게 만든다. 그 사이 오유란이 죽었다고 꾸민다. ④귀신인 척하는 오유란이 평안도로 돌아온 이생과 동침 후, 이생도 귀신이 되었다고 속인다. 이생은 알몸으로 오유란과 관아

35) 이 점에서 〈지봉전〉이 ‘상층 남성주도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서술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한의승(2017), 앞의 논문, 223쪽.

에서 음식을 훔쳐먹다가 망신당한다. 이생은 절치부심하여 등과하여 암행 어사가 되어 평안도에 간다. 김 감사와 오유란과 만나 화해 후 회포를 푼다. 이후 감사와 어사는 평생 영화롭게 살았다.

〈오유란전〉 역시 정남(貞男)임을 자처하며 동성사회의 기준을 무시하는 이생을 교정하고, 그를 동성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는 醜絶소설의 장르 관습을 따른다. 그러나 여기서 醜絶공모자와 醜絶 대상은 공적관계(군신관계)가 아닌 사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사의 초반부터 이들 간의 유대가 끈끈하게 제시된다.

“남아(男兒)의 공명은 반드시 이루리라. 관중과 포숙의 지극한 우정의 바람만은 금세에서 다시 불게 하리라. 설사 빠르고 늦는 차이는 있더라도, 피차 서로 돌보아주며 잊지 아니하니라. 이생들은 금석같은 굳은 우정을 맺으니, 아교로 불이고 옷을 칠한 듯 아주 친하게 지냈다.”³⁶⁾

이생은 경성의 거족(巨族)으로 일컬어지는 지배 양반 가문의 촉망받는 젊은이지만 아직 사회 진출을 하지 않아 헤게모니를 얻지 못한 ‘미성숙한 남성’이다. 친구인 김 감사와는 달리 아직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이생은 스스로를 ‘성현을 배우고 사모해야 할 공부하는 선비(余惟學聖慕賢工夫士子也)’로서 인식한다. 그는 아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헤게모니적 남성은 아니지만, 지식이라는 상징자본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혜택과 이익을 누리며 헤게모니적 이상을 좇아가는 남성이다.

이생에게는 향후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확실한 가부장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입신양명하여야 하기에 그는 공부에 집착한다. ‘번잡한 일에는 뜻이 없어 글공부에만 생각을 둘 뿐(無意繁華之事, 着念於文字)’이며, ‘공부에 힘써서 속히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는(益勤工做 以速榮

36) 〈오유란전〉, 신해진, 『역주 조선 후기 세태소설』, 월인, 1999, 210쪽.

親)’ 것을 우선목표로 지배적 남성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강박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체현은 독서 경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백자를 본 받고자 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거리낌없이 일러 주고자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이렇듯 업신여김이 지나친가?”³⁷⁾ 김 감사의 이 한마디는 이생의 강박이 오히려 그를 남성 동성사회의 일원으로 수월하게 자리매김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 알려준다. 이생의 지나친 강박은 교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훼손의 공모로 서사는 진행된다.

그런데 <오유란전>에서는 ‘귀신 장난’과 ‘알몸 소동’으로 이생을 놀려주는 장면이 드러난다. 이생은 귀신과 하루만 적신으로 서로 안고 자면 죽게 된다는 오유란의 말에, 이제 자신도 죽어 귀신이 되었다고 착각한 후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보여준다. 이는 <지봉전>의 이수광이 훼손 과정에서 희화화되지 않았던 점과 대조된다. 그런데 이생의 훼손에 ‘귀신 장난’과 ‘알몸 소동’의 화소가 투입하게 된 이유도 남성성의 개념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³⁸⁾

37) <오유란전>, 위의 책, 212쪽.

38) 광정식은 귀신장난을 통해 관인후보자 이생이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비약적으로 관인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아 <오유란전>을 관인사회에의 입사소설로 보았다(광정식, 「<오유란전> 연구- 입사식의 서사적 수용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79, 한국어교육학회, 1985, 216쪽) 우선희는 여색에 미혹된 나머지 자신도 귀신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상황 자체가 해학을 조성하며, 이것은 주인공의 허점이나 호색적인 행위의 폐단 따위에 비난하거나 반감을 품게 한다기보다 순진한 청년의 모습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우선희, 「男性毀節小説의 敘事的 特徵과 文化的 位相」, 성균관대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89쪽) 신재홍은 이생이 알몸으로 나선 것이 죽어서 혼령이 됨으로써 이승의 관습과 규율에서 벗어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사회적 억압의 기제를 드러내는 장치로 보기도 했다.(신재홍, 「고전소설의 알몸 형상과 그 의미」,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2015, 454쪽)

우리 육체가 수행하는 많은 감각들 중에 시각, 즉 보는 행위는 권력과 밀접한데, 이 시각의 능동성은 남성적 권력을 상징해왔다. 관음자의 쾌락은 몰래 대상을 볼 수 있는 그 권력 자체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남성은 응시라는 능동적 행위에서 응시의 대상(보이는 자)이 아니라 응시의 주체(보는 자)의 위치를 점유해 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시선의 담지자이며 '시각 양식'을 구성하는 특권을 점하며, 여성은 남성 관객 혹은 남성 관음자의 시선의 대상인 '성적 스펙터클'로서 존재한다.³⁹⁾ 그런데 醜絶 화소에 투입한 '귀신 장난'은 응시의 주체와 대상의 자리를 뒤바꿔 놓는다. 이생은 스스로 귀신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만이 타인을 응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본인은 응시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응시의 주체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은 응시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알몸으로 거리를 확보하고, 마음대로 음식을 뺏어먹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감사와 오유란의 공모에 의한 속임수로, 실상은 응시의 대상이 된 것은 이생이다. 관아에 알몸으로 들어간 이생의 초라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응시하는 순간, 실질적이든 상징적이든 권력은 더 이상 이생에게 있지 않다.

“발가벗은 채로 문을 나서니 행동은 거만하나 모습은 초라했다. 축 늘어진 남량은 두 팔뚝의 맥박에 따라 꼬덕꼬덕하고, 주먹의 반만한 음경은 양다리 사이에서 달랑달랑하니, 대낮에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웃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엄중한 명령이 내려 있는지라 감히 지껄이지 못했다.”⁴⁰⁾

따라서 '귀신 장난'을 통해 '알몸 소동'을 벌이는 이 화소는 주인공 남성이 응시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주며, 그 자

39) 이채은(2019), 앞의 논문, 142쪽.

40) <오유란전>, 위의 책, 234쪽.

체로 이생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에 관한 은유이다. 자신이 남성적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생의 상황을 보여주기에 더없이 적절한 화소인 것이다. 이렇게 미성숙한 남성의 몸을 응시하는 모습이 드러난 화소는 헤게모니적 지배 남성의 휘절을 다룬 〈지봉전〉과 〈정향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 동일하게 미성숙한 남성의 서사를 그렸더라도 한양의 거가귀족 자체가 주인공인 〈종옥전〉과 〈오유란전〉과는 달리 〈배비장전〉은 신분은 양반이나 헤게모니의 중심부에서 더 떨어진 지방의 이서층 ‘배 선달’을 주인공으로 하기에, 배 선달을 향한 알몸 소동과 장난은 종옥과 이생에게 가해진 것보다 훨씬 더 비속해지며 노골적인 조롱의 시선까지도 들어가게 된다.

한편 노골적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후 주인공은 비로소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한 존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지봉전〉과는 달리 〈오유란전〉에서는 휘절 이후 완전한 지배 남성으로 변모한 이생의 이야기가 긴 후일담으로 붙어있다. 휘절 이후 이생은 경성으로 도망치듯 귀환하고는 수 치스러움을 씻는 데에만 뜻을 두고 공부에 매달리게 되며 머지않아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도의 흥년을 살피러 갈 암행어사로 제수받는다.

“천지가 주신 몸 이제사 허물 벗고/ 강산이 눈에 익어 다시 누대 오르코야.

(天地寄身初脫殼/ 江山慣目更登樓)”

“세상은 아득히 머나 눈을 뜨니/ 때가 옵에 할 일이 있어/ 남아 그 뜻을 펴리라.”

(世甯宵而開眼/ 時乎來兮有爲/ 男兒兮得意)

이생이 어사또가 되어 평안도에 오는 길에 읊은 위의 시들은 그가 휘절 이후 ‘허물을 벗고’ ‘눈을 뜨고 남아의 뜻을 펴서’ 예전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후일담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는 김 감사가 암행어사 출두 소식을 듣고 허둥대며 회화화된다는 점이다. 이 어사가 위엄있게 들이닥쳤을 때 김 감사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수청기생 계월의 비단 중의를 걸친 괴이한 차림새로 도망치는데, 이 황급한 상황에서도 계월이를 성적으로 희롱하다가 핀잔을 듣는다.

감사는 어사또가 이생임을 알고 나서는 '그대는 진정 남아로서 뜻을 이룬 사람(兄眞是男兒, 可謂有志者)'이며 '영화의 길에 오른 것이 나의 정성 덕분이다(兄之驚眼間榮道 豈非由我一誠之致歟)'라고 너스레를 떤다. 어사는 웃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즐겁게 회포를 푼다. 김 감사와 이 어사는 차례로 한 번씩 여색 때문에 망신당한 경험을 공유한 후 서로 동일시된다. 어사는 자신은 감사의 명령에 의해 움직였을 뿐이라며 말하는 오류란 예게도 웃으며 '철없는 소년이 되었던 사건'을 어찌하겠냐며 용서한다. 이후 어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일마다 뚜렷하게 밝게 살피니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 합리적인 남성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 어사와 감사는 함께 영의정이 되고 사십년 이상 끈끈한 우정을 다졌다.

결국 이 이야기는 미성숙한 남성이 사적 관계의 절친한 남성의 도움을 받아 각성하여 변화 후 비로소 진정한 동성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신화적 믿음을 보여준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 경험을 공유하면서 남성성을 확립하고 남성 연대가 유지되는 과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안도의 흉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어사까지 파견되게 만든 김 감사의 부족한 자질이나 당대 지배 계급의 방탕한 풍속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

3) 헤게모니로부터 탈주를 통한 '대안적 남성'의 실천과 실패 : 〈삼선기〉

마지막으로 〈삼선기〉는 1918년 이문당판 구활자본 유일본으로 전하는데, 창작시기는 영정시대에서부터 신구소설 교체기까지로 폭넓게 추정된

다. 주인공 춘풍이 지배적 남성으로서 세속적 욕망을 외면하는 인물이며, 그의 휘절 이후의 변화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지봉전>과 유사해보인다. 하지만 휘절 이후 주인공이 개인적 신념을 꺾어서 동성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기보다 자기의 삶 속에서 새롭게 조정된 ‘대안적 남성성’의 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선 두 유형과 확연히 구별된다.

①이춘풍은 한양의 누세 사환가 4형제 중 장남으로 재덕과 인물이 훌륭한 천상 도학자이다. 그는 세속적 욕망을 더럽게 여겨 색욕은 물론 벼슬살이도 마다하고 경학에 몰두한다. ②어느 날 거리의 한량들이 그를 모욕하려 하자 기생 홍도화와 류지연이 자신들이 그를 휘절하겠다고 나선다. ③남장한 홍도화와 류지연이 춘풍을 찾아가 수개월간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지내다 함께 평양 구경을 나선다. 두 남자는 선녀들로 분하여 그를 휘절시킨다. ④휘절 후 춘풍은 평안도에 교방을 차리고 두 남자와 함께 사업을 하며 모가비로 살아간다.

휘절소설의 정형적 구조를 따르자면 서사는 여기서 끝이 나와 할 것이다. 그러나 <삼선기>는 춘풍이 휘절한 이후의 서사가 더욱 길게 진행된다. 이후 ⑤춘풍에게 원망을 품은 통인 노영철과 기생 심일청이 작당하여 그를 살인죄로 모함하고, 춘풍은 경상도 장기로 귀양간다. ⑥신임사또 홍상서가 부임하여 춘풍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후에 춘풍과 두 기녀는 대성산 아래 초당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니 세상 사람들이 ‘지상삼선(地上三仙)’이라 일컬었다.

이춘풍은 부귀공명을 다 가진 사환가(仕宦家)의 후손이지만 홀로 칩거하여 취실한지 십여년이 지나도 부부지정을 모르는 인물이다. 세리(世利)를 괴롭게 여겨 벼슬자리에 천거되어도 출사하지 않는다. 옥 같은 얼굴에 풍채와 기상이 걸출하게 아름다운 그는 못 여인들의 흠모를 받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비안에 학즈요 火食하는 부처’라고 불린다.

유학을 기반으로 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실천하며 사

는 그를 향한 세간의 평에는 '탄식 련골 학자로 도학이 고명하고 기상이 탁월하니 일후에 국가 주석지신'이라는 찬사와 '인물 앗가온 괴물(怪物)'이라는 탄식이 공존한다. 거리의 한량들은 무변(武弁)을 천히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들은 벼슬에 나아가기도 어려운데 춘풍은 귀한 벼슬자리를 거절했다며 욕을 해댄다. 또 춘풍이 평소 자신들의 연회를 지나칠 때 더러운 걸 보듯 했고, 그가 읽는 글은 모두 '우리 갓흔 사람을 욕하는 글'이라며 분노한다. 한량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헤게모니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변적 남성들이다. 그들의 적대감은 춘풍이 동성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려는 적극적인 노력없이도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질시와 반감일 것이다. 한량들이 춘풍의 도학을 깨트릴 궁리를 할 때, 마침 지나가던 기녀 홍도화와 류지연이 자처하여 자신들이 춘풍의 마음을 돌려 휘젓시키고 백년해로하겠다고 공언하게 된다.

여기까지 <삼선기>는 한 남성의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확인하여 동성사회에 편입시키는 癸卯소설의 정형성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텍스트와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다른 癸卯소설에서 기녀들은 제3자(평양 감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지만 홍도화와 류지연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건문을 넓혀 줄 특출난 군자를 만나기를 위하여 스스로 천금을 내고 기안에서 제명하여 상경했는데, 춘풍을 보고 한눈에 사람됨을 알아보고는 홍명학과 류봉학이라는 소년으로 남장해 그의 제자로 들어간다. 두 여인은 불과 수개월 만에 지식을 통달하여 춘풍과 주야로 강론하며 도타운 사제의 정을 쌓는다.

여화위남의 화소는 癸卯소설의 장르관습이 고소설 문법의 영향을 받아 변주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화소에 의해 춘풍과 여인들은 여성과 남성이기 이전에 동등한 선비들로서 신뢰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게 된다. 춘풍은 진심으로 두 제자를 아끼게 되고, 기녀들은 춘풍이 표리부동한 선비가 아니라 실제로도 생활에 조금도 태만한 모양이 없는 인물임을 확인하

며 공경과 흠모를 키워간다.

이후 두 여인은 전생에 천상에서 춘풍과 인연을 맺었던 선녀들(도홍선녀, 류홍선녀)인 체하여 춘풍을 훼손한다. <오유란전>에서처럼 ‘거짓 귀신’이 아니라 ‘거짓 신선’ 놀음으로 그를 속이는 것이다. 이춘풍의 훼손 과정은 귀신장난이나 알몸소동 화소에서처럼 희화화되는 것이 아니라 군자호구의 만남으로 설명되며,⁴¹⁾ 이는 고소설 속 재자가인의 결합 장면과 같이 진지하게 그려져 있어서 해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통 훼손소설에서 드러나는 경쾌하고 가벼운 웃음은 남성들 사이의 불안과 균열을 불완전하게 봉합하는데, 이러한 웃음은 불편한 감정을 문제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⁴²⁾ 하지만 <삼선기>에서 그러한 웃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텍스트가 문제적인 상황에 적당히 웃고 침묵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춘풍은 선녀 벽도랑랑로 분한 홍녀와 동침한 이후, 문득 아름다운 제자들의 얼굴에서 선녀들의 얼굴을 겹쳐 본다. 홍생·류생의 용모와 자질이 선녀들과 같다는 점을 신기하게 여기지만 그들이 동일 인물임은 알지 못한 채, 제자들과 선녀들의 뛰어남이 한가지인 것을 생각하면서 ‘남녀가 일반’임을 인지하게 된다.

“류랑이(...) 선연 작약향 티되 일광을 싸라 찬란하거늘, 리공이 불사록 신기 하야 해오디, ‘저거서 만일 너즈 갖고 남과 갖치 잇으면 엇지 무심하리오? 디강 남중일식이로다. 거야에 벽도 랑랑이 아무리 신기흔들 남복을 식여 빅쥬에 즈서

41) “조각선의 락신부는 종적이 몽랑하고, 초약왕의 운우몽은 신정이 미혹후다. 위슈 속에 누른 구슬 락신음도 올라 니니, 강티공의 도술이느 풍운제회 죠심이오. 류문왕의 굽은 나무 칩덤불로 감앗쓰니, 티스 성덕 길임이느 군즈 호구 아니올가? 정성이 지극 하면 돌부쳐도 말을 하고 솜씨가 능란하면 산 사람도 혼을 췌지. 리 학즈의 빙설 곱흔 절기와 철석 갖흔 심장이 부지중에 녹앗쓰니, 넷말에 하앗스되 디장부의 강흔 창즈도 부인의게 흑흔단 말이 명담이오, 순금의 굽은 물건도 풀무에는 녹느니라.” <삼선기>, 신해진,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396~397쪽.

42) 김수연(2009), 앞의 논문, 212~213쪽.

히 보면 엇지 저만 흐리오 그뿐 아니라 홍성의 인물도 일반이니, 평안도를 식향이라 흐드니 남녀가 일반이로다.”⁴³⁾

또한 춘풍은 선녀들을 만나며 평생 공부한 성인의 말씀에는 설명되지 않은 신선과 같은 별세계를 경험한 것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점차 ‘턴상에도 남녀 분별이 잇스며, 오륜삼강이 잇는’지까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책 속 규범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고민하는 춘풍에게 류생은 ‘턴하 만스의 유무를 엇지 질정흐’겠는가라고 말하며, 현인·군자와 중등 인물이 시세를 따라 생각을 고치거나 풍속을 좇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하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융통성 없게 굴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고 조언해준다.

이런 점에서 〈삼선기〉 속 여화위남 화소는 남성-남성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화소로 춘풍은 홍·류생이 선비로서 보여준 재덕들이 남성들만이 본래적으로 가진 자질이 아닌 것이라는 점을 희미하게나마 깨닫는다. 도홍선녀가 자신들이 홍류 양생이 남화위녀한 것이면 어찌하겠냐고 은근히 물어보자, 그는 ‘양생은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이며 그러한 여자가 세상에 있다면 더없는 기쁨’⁴⁴⁾이라 대답한다. 이후에 자신과 동침한 두 선녀가 사실은 두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남자들의 손을 잡고 두 남자를 손빈·오기의 병법과 제갈공명의 도술을 겸한 자라 칭하며 ‘남자더오!’며 자신과 공부에 나와 평생 함께하여 성현의 도를 강명해서 세상에 천명하였을텐데, 피차 복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한탄한다.

이러한 춘풍의 한탄은 다른 齋絶소설과는 결이 다르다. 남성들 간의 차

43) 〈삼선기〉, 위의 책, 403쪽.

44) “량성은 너의 지극지우라. 평성을 동거홀줄노 상약하야 잠시 리별을 앓기느니 만일 범절과 모양이 그러흔녀즈 잇스며 엇지 이람답지 아니리오!”(〈삼선기〉, 앞의 책, 413쪽)

이와 위계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동성사회적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타자인 여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많은 훼손소설에서 여성의 존재가 지조있는 선비를 유혹하는 위험한 존재로 호명되고 경계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⁴⁵⁾ 그러나 춘풍은 훼손 사건을 여인이 유혹한 탓으로 돌리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지 ‘학성의 공부 차지 못한 연괴이니 누를 원하리오’라며 자책하는 모습만을 보인다. 그는 만약 두 남자를 첩살로 맞이하여 함께 상경하게 된다면 재덕이 있는 여인을 별채에 가두고 자신만 홀로 공부하게 되므로 도리에 맞지 않으며, 반대로 이미 자신에게 몸을 허락한 여성들을 버리고 홀로 상경하는 것 역시도 의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⁴⁶⁾ 결국 그는 스스로 양반이길 포기하고 모가비⁴⁷⁾로서 두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된다.

45) “미색이 사람의 마음을 방탕케 하고 사람의 녀를 미혹케 하는 것은 모두 백옥과 같은 사람이니, 화류계를 탐내는 사람들은 어찌 삼가지 않겠으며 어찌 경계하지 않으리오!”(〈지봉전〉, 앞의 책, 80쪽)

“지조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모산의 약을 구한 장부의 일도 경계할 만한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오유란전〉, 앞의 책, 241쪽)

46) “니 일이 눈쳐호다. 일조에 기첩을 쑹으로 끼고 집의 드러가기도 란쳐하고, 또 저량인이 일조에 규중부인되기도 못홀 일이오, 또 싸로 살림 츠리기도 갖지 아닌 일이오. 니 이미 회첩을 두고 방탕홀진디 도로 온즈흔 체호면 표리부동이라.”(〈삼선기〉, 앞의 책, 420쪽) “니 명식이 경학호든 선비로 기첩을 엮엽히 세고 드러가면 위선 아오등의 모양이 엇지되며, 또 너의등을 다려다가 규중에 가도고 누는 도로 공부할 지경이면 너의등 적막함은 고스호고 니 일도 쓸 썩 업슨 좃시라. 공연히 식구만 붓햄이니 무슨 효암이 잇스리오! 너의등 편함어 곳 누의 편함이니, 조흔 도리로 의론하라 흡이오, 너의등 공동호음은 아니라. 그럼으로 예부터 스즈 조심하기 어려움이 이러흔 연괴로다.”(〈삼선기〉, 앞의 책, 422쪽)

47) 춘풍이 훼손 후 상행위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박일용은 ‘허위적 관념보다 살아있는 시정적 사고방식이 일차적인 주제로 등장’하여 ‘윤리가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박일용, 「조선후기 훼손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학보』 14(3), 일지사, 1988) 이문규는 이것이 ‘전통적 도덕관의 심각한 몰락양상’을 보여준다고 보고하며, ‘도덕적 가치가 이미 절대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했다.(이문규, 「삼선기 연구」, 『선정어문』 1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88, 609쪽)

이처럼 醜絶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인식과 醜絶 이후 춘풍의 대처방식은 다른 醜絶소설 텍스트와 나란히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춘풍은 醜絶 이후 유교적 헤게모니의 이상만을 좇아 완벽하게 체현하는 일이 허상을 깨닫게 되고 그 헤게모니로부터 탈주해버리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醜絶 이후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남성적 질서에 통합되지 않은 '대안적 남성성'을 수행한다. 평안도에 정착해 제일교방을 창건해 꾸려가며 평안·황해 양도에 으뜸 수석이 되어 큰 명성을 떨친다. 한양이 아니라 지방에서, 거가귀족 양반가문의 장남이 아닌 모가비로서, 즉 헤게모니의 외부에서 그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교정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간다. 그는 '슈년이 지나니 음률에 모를 거시 업고 오입 속이 능통'⁴⁸⁾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예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온 남성적 기준들은 여전히 추구한다. 교방 주인으로 예도에 벗어난 자를 효유하고 기방의 예물로 빈민을 구제하며, 본관 사또가 음란한 거동이 있으면 기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는다. 춘풍 덕에 '평양 일편이 심복하야 풍속이 일변하니, 부정헌 일을 부끄러하고 기심의 범절이 조출하야 란잡한 형창을 못하니, 상하 남녀가 표준을 삼'⁴⁹⁾았다고 한다.

그러나 춘풍의 실천은 기존 사회구조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들의 큰 반발을 샀다. 더 이상 준민고택하지 못하는 통인 노영철과 음란한 행위로 논박을 당해 더 이상 교방에 섞이지 못하게 된 기생 심일천이 상합하여 춘풍을 쫓아낼 궁리를 하게 된 것이다.⁵⁰⁾ 마침 기생을 겁간하려던 본관 사령 막석이가 춘풍의 명으로 붙들려오다가 구도설사로 죽은 일이 생기자,

48) <삼선기>, 앞의 책, 424쪽.

49) <삼선기>, 앞의 책, 428쪽.

50) 그들은 '춘풍이 평양 일편 기심을 독촉지하야 사또가 기생수청을 정해도 춘풍의 '분부가 아니오면 감히 썩작 못하고', '황평양도 각읍 기심이 모다 그 절제를 밧즈와 표방(標榜)과 제품(題品)을 슈장하와 통락이 무상하'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는다. (<삼선기>, 앞의 책, 436쪽)

이들은 막석이의 살인죄가 춘풍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그를 귀양 보내게 된다. 춘풍을 쫓아낸 후 영철과 일천은 재물을 마음껏 수탈하며 세를 넓힌다.

이처럼 훼손소설 중 유일하게 〈삼선기〉에서만 주인공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적대적 세력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위협과 경쟁의식을 보여주는 데, 이는 춘풍이 보여주는 대안적 젠더 실천이 기존의 동성사회의 유지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대적 행위에 가로막혀 결국 그의 실천은 기존의 동성사회의 관성을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이후 신임사또 홍상서에 의해 억울함이 풀어지기는 하나 결국에 춘풍은 대성산 아래 초당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영육공달과 상관없는 삶으로 여년을 마쳤다고 서술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그의 대안적 실천이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며, 그가 다른 세계(신선의 공간)로 건너가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편입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비록 춘풍의 실천이 남성중심적 권력의 관성을 타파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훼손소설 주인공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기대되어지는 남성성의 기준과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수행하면서 위치를 조정하는 삶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남성성이 '수행'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수행(un-doing)'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삶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동성사회의 위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젠더적 수행의 모순점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결이 다른 실천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대안적 실천들이 자꾸 가시화되고 모여야만 한다. 비록 서사 속에서 춘풍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새로운 질서를 바탕으로 한 실천과 그를 통해 교화된 사회를 가시

화했다는 측면에서 <지봉전>에서 <삼선기>로의 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4. 결론을 대신하며

: 휘절소설의 다층성과 서사적 향유의 의미

지금까지 살폈듯, <지봉전>과 <오유란전>, 그리고 <삼선기>까지 휘절소설로 불리는 일련의 작품들은 서사적 정형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성에 섹슈얼리티를 거부하는 불온한 남성 주인공들을 휘절을 통해 변화시키는 전형적인 서사 내용은 남성 동성사회적 권력 수호를 위한 거대한 욕망을 보여주지만, 또한 휘절 전후로 남성 주인공들이 각자 다른 선택을 하며 달라지는 서사의 작은 흐름들은 대문자 남성성에서 벗어난 복수의 남성성들의 배치가 현실 속에 존재함을 알려준다. 유교에 기반한 헤게모니적 모델인 '성인·군자형 남성성'은 언제나 추구되지만, 그것은 지역·계층·학력·나이 등의 요인들과 교차하면서 그로부터 제각기 거리를 둔 '영웅호걸형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미성숙한 남성성', '대안적 남성성' 등으로 호명될 수 있는 여러 실천과 그들의 얽힘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고전 서사 속 남성들을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추상적 존재로서만 손쉽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로부터 벗어나 남성성들 내부의 관계와 젠더 정치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는 조선 후기에 왜 이렇게 '남성성들의 정치'를 표면적으로 서사화하는 텍스트가 집단적으로 출현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보통 가부장적 질서의 수호에는 이러한 노골적인 남성성의 정치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선발된 이성에 남성이 기업과 국가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일상적 유지는 보통 성공적이다. 따라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유지 내지는 실천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평소에는 잘 가시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남성성은 굳이 주체화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젠더 질서에 ‘위기’가 감지되면 그것의 대응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주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훼손소설들은 조선 후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일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는 굳건했던 계층적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유학에 기반한 양반층의 헤게모니적 남성 모델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남성성들이 가시화되는 시기였다. 18세기 이후부터 서서히 상층부가 두텁고 하층부가 얇아진 역피라미드형 사회로 전환되면서⁵¹⁾ 전통적 양반 의식의 계승과 헤게모니적 남성 권력의 유지가 도전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통적 남성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현한 남성성들을 기존의 동성사회적 연대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그런데 분명 이 시기의 젠더 실천의 시나리오는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훼손설화의 경우와도 조금 다르다. 16세기경부터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는 훼손설화들은 소설만큼의 서사적 정형성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그 역시 도덕적 삶을 표방해야만 하는 양반 남성들이 훼손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초창기 설화들은 후대의 이야기와는 달리 양반 남성의 훼손에 ‘기녀’가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⁵²⁾ 이는 후대의 소설에서 주인공의 훼손을 공모하고 지

51) 김성우, 「기획: 조선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2-조선후기의 신분제: 해체 국면 혹은 변화과정?」,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6~7쪽.

52) 여세주, 『남성훼손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38~40쪽을 참고. 여세주는 초창기의 훼손설화가 수정기 제도로 인한 양반 관료의 호색적 향락상과 타락을 비판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파악했다.

휘하는 주체로 남성인 지방 관료의 역할이 커지는 것과는 다르다.

한 재상이 남도에 안찰사로 갔는데, 성격이 곧고 엄하여 사사로이 범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기녀와 정이 두터웠으나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며, 세숫 물을 떠오고 소제를 맡아보는 기생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용서치 않아 모두 근심하였다. 안찰사와 정분이 두터웠던 안 씨 기녀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놈의 영감을 한 번 욱보일까 보다.”라고 했다. 어느 날 밤, 안 씨는 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담근 술을 가지고 한잔 올리러 왔는데 외람된 것 같아서 돌려 보냈다고 이른다. 안찰사가 술을 가져오라 재촉하니 안 씨는 밤이 늦어 시종들을 깨워 잔을 낼 수가 없는데, 늦 세숫대야가 있지만 거기에 술을 먹는 것은 공손치 못하다고 말한다. 안찰사는 세숫대야에 술을 따르라고 하여 두어 차례 마시고서 이를 누설하지 말라 부탁하였다. 하지만 다른 기녀들이 모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고을 원이 책망당할 일이 있어 성적 심사에서 하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원이 안 씨 여인을 불러 문제를 해결해 주면 보답을 하겠노라 청탁한다. 등급 심사가 있던 날 기녀가 배가 아픈 척 소리를 지르자 안찰사가 변소에 가는 척 나와서 계집의 등을 어루만지며 무슨 병인지를 물었다. 기생이 대답하기를 “병이 아닙니다. 우리 고을 원이 애매하게 당하는 것이 서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집 지붕의 까마귀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어지신 어른이 이 천첩을 보아서라도 우리 고을 원님을 한번 용서하시지 않으시렵니까”라고 하였다. 계집이 울면서 두 다리를 안찰사의 어깨에 올려놓고 “늙은 첨지에게 형들을 씌웁니다”라고 하자 안찰사가 “형들치고는 좋구나”하고는 그 뜻을 승낙 하였다. 그는 고을 원을 중등급으로 품제하였다. 안찰사는 후일 정승에까지 나아갔으며 풍채와 도량이 매우 좋았다.⁵³⁾

위의 인용문은 16세기에 김안로(金安老)가 찬술한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에 수록된 〈모안렴위기광욕(某按廉爲妓誑辱)〉의 내용을 간추린 것

53) 국역 『대동야승』 3,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3, 519~521쪽.

이다. 주인공은 끈고 엄하게 지역을 다스리고 감찰해야 할 공적 의무를 지닌 자로, 재덕을 발휘하여 이상적 통치를 실천해야 하는 남성이다. 하지만 주인공의 지나친 강직함 때문에 관아에서 그를 모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자, 다른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 씨 기녀 스스로 나서서 그를 육보여서 기세를 꺾겠다고 장담한다. 결국 주인공은 안 씨의 모략에 휘말려 많은 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정사까지 불공정하게 처리하며 양반 남성으로서의 면모와 멀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양반 남성다움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을 원이 아니라 기녀 안 씨이다. 이렇게 초기의 설화에서는 주로 이상적 남성성의 수행에 가장 큰 위협으로 남성 외부의 타자인 ‘여성’이 초점화되다가 점차 후기의 서사에서 ‘남성들’ 내부의 균열이 초점화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남성성의 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처럼 진정한 남성성이 ‘위험한 여성’이나 ‘불온한 남성’으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훼절 서사’들은 큰 비중으로 한문 문헌⁵⁴⁾에 기록되어 전한다. 이들 이야기가 주로 남성들 사이에서 전해져 왔다는 것인데, 이는 즉 훼절 서사의 향유 행위 자체가 동성사회적 연대를 위한 젠더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들 이야기의 연행과 전승에 참여하는 것이 곧 남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수행하는 하나의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성적인 것에 대한 잡담은 상호간 남성성을 승인하는 대

54) 훼절설화들 역시 『어면순(禦眠楯)』, 『기문총화(記聞叢話)』, 『청구야담(靑邱野談)』, 『계서야담(溪西野談)』, 『동야휘집(東野彙輯)』 등 한문 문헌에서 다수 발견된다.(여세주(1995), 앞의 책, 25~26쪽의 남성 훼절설화자료목록을 참고) 훼절소설 중에서도 비교적 후대의 작품인 <배비장전>과 <삼선기>는 국문으로만 전하긴하나, 그 외의 작품들은 모두 한문본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군의 주요 향유자가 남성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55) 젠더 주체로서 ‘남성’을 형성하는데 주효하게 작용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남성 동성 집단 내에서 연행되거나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서사 향유 공동체에 참여한 이들은 관습적으로 고착된 사회적 관계와 상호 작용의 틀을 공유하고 있는데, 언어적

표적인 의례 중 하나다. 『용천담적기』의 자서에는 김안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하던 이야기를 기억하여 붓 가는 대로 기록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농담하는 것에 대신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또 <중옥전> 앞에 붙인 서에서 목태림은 그것이 와룡산 암자에서 독서하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다. 휘절서사가 곧 남성들이 모였을 때 흔히 하게 되는 이야깃거리 중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남성성 위기에 빠뜨리는 젠더 외·내부의 요인들을 설정하고 그 위기를 봉합하는 과정을 그린 서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남성성의 내용에 관한 시나리오를 구현하는데, 만약 이러한 서사를 어린 남자아이가 접한다면 그 아이의 젠더 수행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휘절서사들은 양반의 위선과 타락에 대한 경멸과 조소의 시선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막상 휘절한 남성은 단 한 번도 강력하게 처벌 받은 적이 없다. 또한 남성성의 위기는 역으로 남성성의 강화와 유지, 남성 연대의 확장의 기회가 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곧 남성성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진짜' 위기를 겪은 적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설화 또는 소설의 형식으로 남성의 휘절, 즉 남성성의 위기에 대한 서사가 꾸준히 창작되고 향유되어 오는 동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는 언제나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들은 그 어떤 시점에서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가장 후대의 작품인 <삼선기>에서도 볼 수 있듯, 심지어 한 개인은 헤게모니적 남성 모델로부터 벗어나려는 순간조차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휘

관습과 소통코드로 표현되는 담론 자원을 유사한 수준으로 공유하지 못한 이들을 연행 공동체의 바깥으로 배제하곤 한다. (김영희, 「남성의 불안과 우울을 대리하는 '여성의 죄': 구술서사의 연행과 젠더 주체로서의 '남성의 형성」, 『그런 남자는 없다』, 오월의봄, 2017, 28~61쪽)

절 서사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확고부동한 권력인 것처럼 보이는 남성성의 개념이 사실은 계속 도전받는 연약한 구성물뿐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어 주지만, 또한 동시에 기존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남성 모델이 얼마나 깨뜨리기 어려우며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지봉전〉, 〈오유란전〉, 〈삼선기〉; 신해진,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35~80, 188~241, 360~449쪽.
- 곽정식, 「〈오유란전〉 연구- 입사식의 서사적 수용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79, 한국어교육학회, 1985, 213~229쪽.
- 권김현영, 「남장여자/남자인간의 의미와 남성성연구 방법」,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35~62쪽.
- 권내현, 「조선후기 신분 변동론 그 이후」, 『朝鮮時代史學報』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177~206쪽.
- 김기동, 「오유란전소고」, 『국어국문학』 20, 국어국문학회, 1959, 78~83쪽, 78~84쪽.
- 김성우,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69~195쪽.
- _____, 「기획: 조선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2-조선후기의 신분제: 해체 국면 혹은 변화과정?」,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3~29쪽.
- 김수연, 「〈오유란전〉에 나타난 남성성장과 웃음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185~216쪽.
- 김영희, 「남성의 불안과 우울을 대리하는 '여성의 죄': 구술서사의 연행과 젠더 주체로서의 '남성'의 형성」, 『그런 남자는 없다』, 오월의봄, 2017, 28~61쪽.
- 류지현, 「남성 페미니스트 주체의 자기 구성과 경계 횡단하기」,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1~180쪽.
- 박일용, 「조선후기 회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상」, 『한국학보』 14(2), 일지사, 1988, 19~114쪽; 「조선후기 회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下」, 『한국학보』 14(3), 1988, 일지사, 77~99쪽.
- 박태복, 강우규, 「〈현몽쌍룡기〉 連作의 人物類型 研究 男性人物의 類型과 反復樣相을 中心으로」,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2011, 167~191쪽.
- 설혜심, 「서구 남성사 연구의 주요 의제들」, 『젠더와 문화』 1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7, 7~44쪽.
- 송소라, 「남성회절서사 다시 읽기: 해학과 풍자에 가려진 여성혐오」, 『어문연구』 18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115~147쪽.
- 신재홍, 「고전소설의 알몸 형상과 그 의미」,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 2011, 441~472쪽.
- 여세주, 『남성훼손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1~280쪽.
- 우선희, 「男性毀節小説의 敘事的 特徵과 文化的 位相」,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1~95쪽.
- 윤세순, 「지봉전 연구-17세기 애정전기소설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2005, 193~227쪽.
- 윤채근, 「조선후기 남성훼손 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양상-정념 담론에서 이익 담론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45~86쪽.
- 이동건, 「선비와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153~186쪽.
- 이숙인, 「지속과 변용의 측면에서 본 19세기 유학의 젠더 담론」, 『인간연구』 3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9, 101~133쪽.
- 이채은, 「〈심청전〉 속 심봉사의 남성 젠더 실천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129~164쪽.
- 장교운, 「훼손소설의 속임수와 작가의식」,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1~178쪽.
-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한국고소설학회, 2011.
- 정혜경, 「감정과 이성의 역학, 인간학으로서 훼손소설」, 『국제어문』 74, 국제어문학회, 2017, 61~84쪽.
- 조도현, 「『지봉전』의 역사인물 형상화를 통해 본 작가의식」, 『인문사회21』 6권,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549~574쪽.
- R.W.코넬·안상욱 외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448쪽.
- Sedgwick, E 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p.1~272.

ABSTRACT

Multilayers of Masculinities and Male Gender Practice
in the '*Hwejeol* Fiction(Stories about Men Breaking His Faith)'
of the Late Joseon Dynasty

Lee, Chae-eu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group of novels called '*Hwejeol* Fiction(Stories about Men Breaking His Faith)' appeared. They shared the narrative that the heterosexual sexuality of the male character is confirmed through tests. This narrative mean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heterosexual sexuality of individual men and granting them membership in the homosocial communities. This work was examined the homosocial between mens through three works of *Hwejeol* Fiction: '*Jibong-jeon*', '*Oyuran-jeon*', and '*Samseon-gi*'.

First, in '*Jibong-jeon*', a dominant man who rejects heterosexual sexuality and has the potential to discord with homosocial standards appears as the main character. In this tex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minant men is focused, the virtue of the public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particularly emphasized to sustain the male bond. The dominant male protagonist never becomes profanity in the process, and is embraced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interruption.

Next, in '*Oyuran-jeon*', an immature man who pursues hegemonic masculinity appears. The narrative deals with the process of growing these immature men into true dominant men. He grows up with the help of men in private relationships such as family and friends, and in the process, a humorous episode in which they are shown there naked bodies. At the end of the narrative, they transforms into a being who embodies full hegemonic masculinity and lives happily as a member of the homosocial community.

Lastly, '*Samseon-gi*' i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two types in

that it shows the practice of a newly adjusted 'alternative masculinity' rather than actively incorporating into the homosociality by breaking personal beliefs. Here, women have much more active voices and self-awareness than in the previous two types. Since the gender practice of the male protagonist poses the greatest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male same-sex society, unlike other narratives, hostile forces that block him appear, showing explicit hostility toward the protagonist. In the end, the protagonist is not fully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homosocial society but is incorporated into a different world.

The fact that most of these narrative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mainly enjoyed between male readers. It suggests that the enjoyment of narratives itself can be an practice for male readers' homosocial solidarity. The existence of a long-running these narratives clearly reveals that the concept of masculinity, which on the other hand seems to be a firm power, is only a fragile component that is constantly challenged, but it also has great implications today in that it also tells us how difficult and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existing male model holding hegemony.

Key Words Masculinity, Homosocial, Hegemonic masculinity, Late Joseon Dynasty, 'Hwejeol Fiction(Stories about Men Breaking His Faith)

논문투고일: 2024.01.15.

심사완료일: 2024.02.02.

게재확정일: 2024.02.07.